



한국가톨릭의료협회임원 미국가톨릭병원방문



2005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의료협회 회장 최영식 신부를 포함한 회원 병원장들로 구성된 6명의 임원들이 미국에 있는 OSF Health Care(일리노이와 미시간 주의 250만 명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와 SSM Health Care(세인트루이스에 본부 소재) 등 2개의 가톨릭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선진화된 경영기법과 이념실천의 업무 시스템이 정착화된 의료기관 최고 경영진과 회합을 갖은 후 병원 현황을 둘러보았다. 최영식 신부(협회 회장)는 이들 두병원이 미국을 대표하는 가톨릭병원으로 급변하는 의료시장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전략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과 가톨릭이념에 입각한 업무수행의 탄탄한 조직문화를 정착화 시키고 있는 점을 소개하고 우리 협회 회원 병원이 벤치마킹해야 할 분야들은 후속되는 교류를 통해 진전시키고자 하며, 우선 회원병원 관련 인사의 정기적인 연수파견과 SSM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연수 프로그램 Baldrige Nation Quality Progra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병원방문의 개요

구분	OSM	SSM
소재	미국 중부 일리노이	미국 동부 세인트루이스
설립	1877년	1877년
주요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녀회 운영 병원 - 입원환자 : 56,510명 - 외래환자 : 694,000건(2000년) - 직원 : 12,000명 - 가정간호 방문수 : 103,590건 - 호스피스 일평균 환자수 : 1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녀회 운영 병원 - 20여 개 급성기병원/ 3개 요양원 운영 - 외래환자수 : 1,103,343명(2004년) - 직원 : 23,300명/의사 5,000명 자원봉사자 : 5,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2조2520억 원/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1조9900억 원/년 - 순이익 : 714억 원/년 - 무상의료지원 : 589억 원/년
주요경영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CEO 제도 운용 - 수녀감소로 인해 20년 전부터 시행 - 재정운영 양호, 다양한 전략사업 추진 (Joint venture사업, 보험사업 등) -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신도시 병원투자 - 헬기 2대 보유(2006년 2대추가 예상) - 진료수가 주정부 우대 수혜 - 이념구현이 재무적 성과를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이라 주요관리지표를 구성 report card system 운영 중 - 이념실천의 조직문화 정착 Ministry Development Program 운영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에 역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녀 CEO - 수녀감소 문제 대처방안 모색 중 - 4개주 23개 의료기관 소유 - 경영의 지속적인 질 개선에 전념 - 병원경영의 성과 없이는 이념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 정착화, 혁신운영 성과 지속적 호전 - 23,300명 직원 지표관리 철저(이념/비전 달성) - 2002년 Malcolm Baldrige Award 수상 - 간호사 책임 자율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요청 시 수락의사 있음. - 직원훈련 중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수용가능

협회 '의료스마트카드 도입사업' Kick off...



협회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스마트카드 도입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기점으로 200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업무를 개시했다. 의료스마트카드는 신용카드에 직접회로(IC Chip)를 내장하여 획기적인 메모리 기능강화와 함께 다양한 업무기능을 접목할 수 있어 병원 유비쿼터스화의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내 교통분야 등 다른 산업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고, 병원산업의 경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에서 이미 도입하여 분야를 확대시키고 있어, 병원발전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우리 협회의 스마트카드사업은 지난 2005년 3월 협회 창립총회에서 사업안으로 의결되었고 6월에 회원병원 업무관련 팀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1차로 선정된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메리놀병원, 성가병원 등 5개 병원을 대상으로 LG CNS(국내 스마트카드분야 최우수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11월)하여 개발을 위한 기초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방문 환자의 24시간 환자 체크 강화에서부터 수납 및 주차까지 다양한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병원간의 진료 네트워크 형성을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차로 선정된 회원병원의 개발이 완료되면 2차 개발병원을 선정하여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단체)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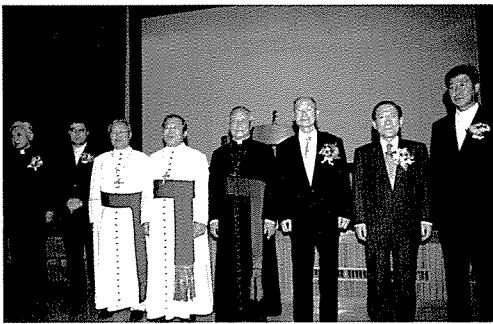
2005년 12월 1일, 협회 8개 회원병원(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성가병원, 성빈센트병원, 청구성모병원, 메리놀병원, 창원파티마병원)이 단체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구.동양화재)가 간사사가 되고 부간사 열지화재 외 3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보험에 가입한 회원병원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환자측에 대한 병원 및 의사의 배상책임을 담보 받게 된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대형 의료사고로 인한 병원손실을 최소의 경비로 대처할 수 있고 의료사고에 대한 지출경비를 경상적 경비화 또는 예측가능경비로 대체할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의료사고처리업무 보험사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보험료 할인혜택은 물론이고 보상조건의 개선 등 단체가입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병원의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 제정안을 이반 정기국회에서 발의,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법이 통과되면 현재까지의 상황과는 달리 사고에 대한 거증책임이 병원 및 의사에게 귀결되어 현행보다 병원측의 부담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국내병원의 보험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증서
증권번호 : 481-76

MERITZ 메리츠화재상보험주식회사

구분	내용
1. 계약번호	481-76
2. 계약종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3. 계약기간	2005. 12. 01. ~ 2006. 11. 30.
4. 계약금액	1,000,000,000원
5. 계약조건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6. 계약대상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메리놀병원, 성가병원, 성빈센트병원, 청구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7. 계약내용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8. 계약금액	1,000,000,000원
9. 계약조건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10. 계약대상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메리놀병원, 성가병원, 성빈센트병원, 청구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11. 계약내용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12. 계약금액	1,000,000,000원
13. 계약조건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14. 계약대상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메리놀병원, 성가병원, 성빈센트병원, 청구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15. 계약내용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16. 계약금액	1,000,000,000원
17. 계약조건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18. 계약대상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메리놀병원, 성가병원, 성빈센트병원, 청구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19. 계약내용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20. 계약금액	1,000,000,000원
21. 계약조건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22. 계약대상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메리놀병원, 성가병원, 성빈센트병원, 청구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23. 계약내용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24. 계약금액	1,000,000,000원
25. 계약조건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26. 계약대상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메리놀병원, 성가병원, 성빈센트병원, 청구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27. 계약내용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28. 계약금액	1,000,000,000원
29. 계약조건	본 계약은 2005. 12. 01. ~ 2006. 11. 30. 까지 유효하며, 2006. 12. 01. 이후는 자동갱신되는 계약입니다.
30. 계약대상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메리놀병원, 성가병원, 성빈센트병원, 청구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체줄기세포 연구 생명위원회 출범



20 05.10.0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정진석 대주교와 강영훈 전 총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 출범식을 갖고 성체줄기세포 분야에 세계 최대 규모인 1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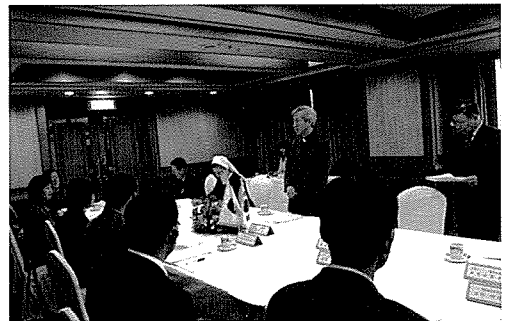
천주교 대교구는 총상금 3억 원의 '생명의 신비상'도 제정하여 성체줄기세포 연구 분야에 큰 업적을 세운 인물을 포상하고, 생명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성체줄기세포 관련 연구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의료연구본부(위원장 최영식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를 설립 운영하며 생명존중 문화캠페인을 이끌어갈 생명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와 기획홍보단(단장 허영엽 신부), 가톨릭세포

치료사업단(단장 천명훈 가톨릭의대 교수)등을 운영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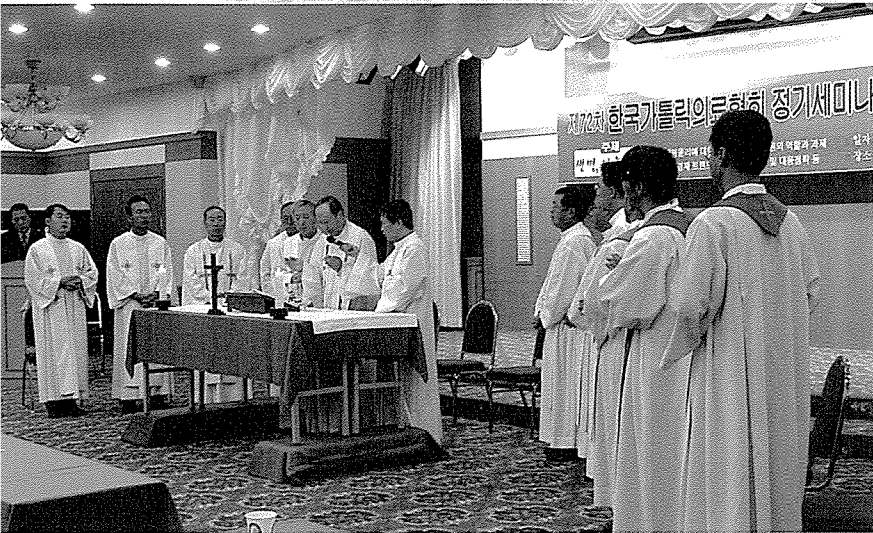
이와 관련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성마리아병원에 관련자료를 통보하고 일본 성마리아 병원을 포함한 가톨릭시설협회가 연구 및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일. 성마리아 병원 간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방문

일본 성마리아병원 간부 우리베 다이샤쿠 국제협력부장(소아과 전문의)을 비롯한 5명의 간부가 2006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협회를 방문하였다. 주요 일정은 방문 첫째 날에 최영식 의료협회 회장 신부를 예방하고 배석한 협회 임원(정수교 사무총장, 남궁성은 CMC의무원장, 유인자 강남성모병원 간호부장, 윤학식 사무국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이 처한 현안 및 의료시장 환경에 대한 정보교환과 교류증대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협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실무는 금년 5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제 19차 한일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둘째 날은 성모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병원 각 분야에 대한 견학을 실시했다. 방문자들은 견학 중 응급센터를 비롯한 운영시스템 및 첨단의료기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방문 마지막 날에는 경복궁과 인사동을 관광하고 공식 일정을 모두 끝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 세미나 및 이사회 열려



한국 가톨릭의료협회 2005년도 정기세미나가 2005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남 통영 마리나콘도에서 열렸다. 가톨릭의료협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정기세미나 행사에는 전국 회원병원의 중견 간부급 직원 및 보직자, 가톨릭의사협회, 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약사회 등 각 직능협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에서는 ① 생명윤리에 대한 이해와 가톨릭병원의 역할과 과제(김중호 신부) ② 가톨릭병원의 블루오션 전략(송경근 대표) ③ 21C 글로벌 환경과 경제 트렌드(이영권 교수) 등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해외의료선교단 구성, 본당연계가정간호사위원회 구성 등의 분과위원회가 열렸고 행사에 앞서 가톨릭의료협회 이사회가 진행되었는데 공동구매 사업 추진 건, 이라크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건 등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협회 C.I 로고 공모 추진 응모작품 평가 지연에 대한 유감의 뜻 전해.....

한국 가톨릭의료협회는 2005년 3월 4일 공식출범을 계기로 가톨릭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연합과 공조를 이루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협회의 C.I 로고를 공개모집하여 우수 응모작품을 선정, 시상하고 그 중 협회 기관의 정서와 이미지를 잘 담은 작품을 C.I 로고로 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작품응모 마감결과 총 59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나 작품 평가 및 선정 업무가 평가위원의 의견조율 및 전문가의 평가를 취합하는 과정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평가위원진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시간 지연되어 당초 계획한 일정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하고, 늦어도 2006년 3월까지의 평가업무를 진행하여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